

서울시 체감경기 소폭 개선됐지만 기준치는 밀돌아 아직은 '부정적'

서울연구원, 3분기 소비자태도지수 전분기 대비 4.9p 올라 95.9 기록
가구소득별로 2400만원 미만가구 전분기대비 6.9p올라 최대폭 상승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태도지수가 2분기 연속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밀돌아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민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서울연구원의 '2023년 3/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 정책 리포트에 따르면, 올 3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4.9포인트 오른 95.9를 기록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지난 1분기 88, 2분기 91, 3분기 95.9로 두 개 분기 연속 오름세이나, 기준치(100)를 하회해 경기에 먹구름이 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태도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제나 소비 지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미이고,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원 미만가가 직전 분기 대비 6.9포인트 올라 가장 크게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와 60대가 전 분기보다 각각 5.3포인트, 5.1포인트 뛰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의 미래생활형편지수는 95.3으로 직전 분기 대비 1.8포인트 올라 상승으로 전환됐다. 시민들이 1년 후 가계 생활형편이 호전될 것으로 본 주된 이유는 '가계소득 증가'(46.4%)였다. '보유자산의 가치 상승'(13.2%), '가계부채 감소'(11.9%)가 뒤를 이었다. 현재 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보다 5.3포인트 오른 85.5로 2분기 연속 상승했다.

서울의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직전 분기 대비 3.8포인트 오른 77을 나타냈다. 1년 후 서울 지역 경기가 현재보다 호전될 것으로 보는 이유를 묻는 항목에선 '세계경기 회복'과 '물가 안정'이라는 응답이 각각 23.6%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기업경기 회복'(18.4%), '부동산 경기 회복'(14.4%), '막연한 기대감'(13.8%), '주식시장 활황'(6.3%)이 그다음이었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보다 5.3포인트 상승한 64.3이었다.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직전 분기 84.6에서 올 3분기 87.3으로 2.7포인트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문화·오락비'가 68에서 74.1로 가장 큰 오름폭(6.1포인트)을 기록했다. 이어 '교통·통신비'(93.4→98.2) 4.8포인트, '주거비'

(96.8→99.8) 3포인트 순이었다. '식료품비'는 0.7포인트(99.3→100)로 상승폭이 가장 낮았으나, 품목 중 유일하게 기준치(100)에 도달해 향후 1년 후 식료품을 구매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이 늘어난다고 보는 시민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 110.9에서 3.3포인트 오른 114.2를 나타냈다.

올 3분기 서울시민의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2분기보다 3.2포인트 상승한 77.3으로, 최근 5년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순자산지수는 96.6으로 전 분기 대비 0.3포인트 소폭 올랐다.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3600만원 미만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 계층에서 상승했다. 가계의 순자산이 증가한 이유는 '금융자산 증가'가 37.9%로 가장 많았다. '소득 증가'(29.6%), '부채 감소'(23.6%)가 뒤를 이었다.

고용상황전망지수는 77.9로 지난 2분기보다 2.8포인트 올랐지만, 5분기 연속 70대 수준을 유지해 전망이 밝지 않았다. 물가예상지수는 139.5로 전 분기 대비 0.8포인트 하락해 2021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130대로 떨어졌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서울시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광장시장까지 간다

서울시, 노선 연장... 총 4.8km 운영

서울시는 청계천 자율주행버스의 노선을 광장시장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청계천 자율주행버스(3대)는 작년 11월 25일부터 청계광장에서 세운상가(총 3.2km)까지를 순환 운행했다.

이번에 연장되는 광장시장 구간은 무단횡단 보행자와 오토바이 통행이 많아 자율주행이 어려운 구간이다. 시는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운행 안전성을 검증한 뒤 세운상가부터 광장시장까지 총 4.8km 구간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청와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는

이달 9일부터 운행이 일시 종료된다.

시는 자율주행시스템 내부 점검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버스 운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공모를 진행한 뒤 현재 무료로 운행 중인 청와대 자율주행버스를 유상 운송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공모 사업은 총 6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상암·강남·청계천·청와대·여의도·중앙차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1월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시는 서류 검토, 안전운행능력 검증,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200가구 미만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무료 분석

서울시, 저층주택 밀집 1만㎡ 미만 대상 오는 30일까지 접수, 내달 대상지 선정

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 중 1만㎡ 미만,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을 서울시가 무료로 분석해 준다.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사업 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소규모재건축 대상이다.

시는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

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분석 대상지에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한다.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이달 30일까지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 양식을 작성해 사업자가 위치한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내달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5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거쳐 사업성 분석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

내달까지 44개교 대상 진행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뮤지컬 공연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학생 참여·체험 중심으로 구성된 이

번 뮤지컬 공연은 사전 신청을 한 400여개 학교 중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우수 44개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컬처패밀리가 제작한 창작 뮤지컬 'E와 I 사이'(초등용), '다시 만난 세계'(중등용)가 무대에 오른다. 공연에

는 학생들이 참여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가해자로서 겪을 수 있는 반성과 성찰의 과정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공연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뮤지컬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선서문 낭독 ▲학생 배우로 참여 ▲관람 후 활동지 작성 ▲설문조사 등에 참여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03 | 해짐 / 17:28

11월 7일 (화)
음력 : 9월 24일

수도권 날씨
3~1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2/9, 동두천 1/9, 가평 2/9, 양평 3/10, 용인 4/9, 평택 5/11, 인천 5/9, 수원 4/9, 서울 3/10, 파주 2/9, 백령도 5/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美 CIA 국장 중동 순방...이스라엘과 정보 공유 확대 추진 /사진 뉴시스
▲하마스 고위급 "북한은 동맹국...함께 미국 공격할 수도"

▲中 동북부 때이른 폭설·한파...경보조치까지 내려져
▲日 기사다 사칭 시 '가짜 동영상' 확산... "민주주의의 기반 손상"



▲우크라이나 "러 사상자 하루 만에 1000명 증가...총 30만5090명" /사진 뉴시스
▲日 도쿄서 8일부터 G7 외교장관 회의...이·팔 정세, 중 동향 등 논의